

문화

# 연말, 이 공연 놓치면 후회할걸요~

연말을 맞아 다양한 공연들이 쏟아지고 있다. 막대한 제작비를 들이고, 유명 스타들을 앞세운 작품들이 얼핏 눈에 띄지만, 지역 예술인들이 선보이는 작품 가운데 내공이 만만찮은 작품들이 많다. 지난 공연에서 다 '검증'된 작품들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연들이다. 놓치면 후회할 3편의 공연을 소개한다.

### ▶광주시향 제야음악회

새해 첫날을 아름다운 클래식,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31일 열렸던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의 '제야음악회-노는 음악회'는 최고 히트상품이었다.

한해의 마지막과 새해 첫날을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보낸 관객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 폭설이 쏟아지는 밤이었지만 밤9시30분 공연장에서 공연은 시작됐고, 이후 로비로 옮겨간 관객들은 간단한 먹거리를 나누고 새해 카운트다운을 함께하며 '진짜' 음악회를 즐겼다.

광주시향이 올해도 제야음악회(31일 밤 9시30분부터 광주문예회관 대극장)를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는 '새해맞이 거시기한

음악회-멜랑콜리'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아쉽게도 구자범지휘자가 내년 3월 경기도립교향악단으로 자리를 옮기는 터라 마지막 제야음악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연주 레퍼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곡들지만 음악회 제목처럼 슬픈 기운의 곡들이기도 하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비탈리의 '샤콘느', 말리의 교향곡 '5번 4악장', 라벨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 브람스의 '교향곡 3번 3악장'을 만날 수 있다. 소프라노 전지영씨가 출연한다. 공연 후에는 로비에서 또 다른 음악회가 열린다. 티켓가격 1만원~3만원. 문의 062-510-9336.



### ▶푸른연극마을 '어머니, 그 아름다운 이별후애'

엄마·아내·누나의 모습으로 살아온 그녀... 공연 내내 눈물이

소설로, 영화로, 드라마로 '어머니'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꾸준히 만들어진다. 푸른연극마을이 25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7시)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무대에 올리는 '어머니, 그 아름다운 이별후애' 역시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 인희는 의료사고 때문에 자존심을 짓밟힌 무뚝뚝한 남편, 차매에 걸린 시어머니, 제 할일에만 바쁜 딸과 아들, 사고만 치는 남동생을 모두 '꿈'에 안고 살아간다. 그러던 중 암선고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그제서야 '엄마, 아내, 누나'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를 생각하게 된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객석에서는 공연 내내 흐느낌이 그치지 않는다.

배우들의 앙상블이 좋지만 특히 인희 역을 맡아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엄마'처럼 담담한 일상 연기를 보여준 이담규씨의 연기가 빛을 발한다.

담담하게 죽어가는 아내를 품에 안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게 껴안은 두 팔을 놓지 않으리"라는 광재구의 시 '희망에 대하여'를 읊조리는 장면도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다. 또 극의 마지막, 공연 내내 피아노 라이브 연주를 해준 박양희씨가 나즈막히 부르는 노래는 깊은 울림을 준다.



다른 연극과 달리 나이 지긋한 40~50대 관객들이 많았고 부모님과 함께 온 젊은 관객도 눈에 띄었다. 푸른연극마을 카페에 신청하면 사랑 고백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511-2446.

###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Wish to fly II

가족용 문화상품- 아이들의 맑은 소리에서 느껴지는 감흥

지난 6월 합창단의 'Wish to fly' 공연을 보기 전까지는 '애들 공연이 얼마나'는 선입관이 있었다. 하지만 잘 짜여진 스토리와 음악 뿐 아니라 영상, 음향, 3D로 구현된 무대장치가 어우러진 공연은 기존의 합창단 공연과 전혀 다른 감흥으로 다가왔다. 특히 아이들의 목소리가 주는 맑은 기운 덕에 객석에서는 눈물을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

첫번째 작품이 자신들이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면 이번 작품 'Wish to fly II'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한발 한발 내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작처럼 이어진 단장과 음악감독 김성광씨, 현대무용가 박진수씨가 함께 참여했다. SBS '스타킹'에서 우승하며 폴 포츠와 특별무대를 갖는 '꿈'을 이룬 김태희가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넌과 관타지아'를 부른다. 애니메이션 '스노우 맨'의 주제가 'Walking in the air', 우리에게 '연가'로 잘 알려진 뉴질랜드 마오리 민요 'Pokarekare Ana' 가곡 '고향의 봄', '징글벨 록' 등으로 엮어진다. 공연은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티켓 가격 5000원, 1만원. 문의 062-510-93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애절한 춤사위, 순천만을 품다

순천무용단, 20일 '천변연가' 공연

순천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사)순천무용단(단장 송천·사진)이 20일(오후 7시30분 순천문예회관) 무대에 올리는 '상생-순천만, 하늘이여 사랑일레라'는 한국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애절한 사랑 이야기다. '천변연가'라는 제목이 붙은 '상생-순천만'은 올해 전남도 선정 공연장 상주단체로 뽑힌 순천 무용단이 의욕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다. 공연은 2부로 구성돼 있다.

'난장'이라는 타이틀로 꾸며지는 1부에

서는 가야금 병창 '홍보가' 중 '제비 노정기', 중요무형문화재 제 15호 북청 사자놀음 민요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 아리랑' 등을 들려준다.

2부에서 선보이는 '천변 연가'는 인생의 가장 황홀한 순간인 '사랑'의 감정을 아름다운 풍광의 순천만을 배경으로 펼쳐보이는 작품이다.

순천무용협회장을 맡고 있는 단장 송천(명신대 겸임교수)씨는 조선대 출신으로 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 이수자다. 국립무용단 지도위원을 역임한 윤상진



씨가 총예술감독과 안무를 맡았으며 류기형(연출·유급치 예술감독), 강종화(음악·광주시립국악악단 지휘자) 씨 등이 함께 작업했다.

동아무용 공쿠르 대상 수상자로 국립무용단 주역 무용수인 이정운씨를 비롯, 이정주·김연옥·나윤정·이정민·도은정·이현주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서양화가 김진화씨 '광주미술상' 수상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용)가 수여하는 '제16회 광주미술상' 수상자로 서양화가 김진화(40·설치 및 회화·사진)씨가 선정됐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주 YMCA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씨와 함께 본심에 오른 한국화 임남진씨, 판화·서양화 박선주씨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투표를 거쳐 김씨를 수상자로 뽑았다.

김씨에게는 10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이 주어졌고, 본심에 오른 임씨 등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수여됐다.

심사위원들은 김씨의 작품 세계에 대해 "평면 회화를 기본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조형 실험이 눈에 띄고 재료를 다루는 솜씨와 이를 조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했다.



김씨는 "선배 작가들이 정성을 모아 준 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보다 의미 있고, 더욱 열심히 작업해서 좋은 작품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공간을 통해 현대인의 자화상을 되짚어 보고 있는 김씨는 호남대와 미국 프랫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광주와 뉴욕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한편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신나는 예술路'

예술의 거리 확장 기념행사 24일 예술의 거리 야외무대

예술의 거리 확장 기념행사인 '가보고 싶은 거리, 신나는 예술路'가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예술의 거리 야외무대(중앙초 사거리)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술품 경매 및 무료 감정이 진행되며 프로젝트 가이디 카페 회원들은 '액션! 환경을 고민하는 젊은이들 전시'를 개최한다.

또 축하 공연과 예술의 거리 달력 무료 배포, 먹거리 나누기 등이 열린다.

예술의 거리는 동부경찰서~중앙로까지 300m에서 가톨릭센터~중앙초등학교 후문 입구까지 303m 구간으로 확장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온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수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社團 星谷 傳統文化 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法人 星谷 作名·鑑定 專門 哲學院 010-7671-5623  
위 치 : 동구 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

# 명품시계 전남/북 총판

A/S는 유명백화점 갤러리어클락 매장과 공유됩니다.

GALLERY O'CLOCK

갤러리어클락 광주점  
TEL. 062 233 2251  
광주 동구 충장로2가 25-1번지(학생회관 후문 다이소 옆)

- \* 본 매장은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 \* 명품시계 취급점 모집

CITIZEN, TechnoMarine, FENDI, TIMEX, Salvatore Ferragamo, BOSS, Paul Smith WATCH, CELINE, COACH, NIXON, AIGNER, D&G